

도쿄가 서울을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다

평화문·뷰



정우상
정치부장

아이라니다. 가난했던 서울에 도쿄의 도심 고가도로는 동경 대상이었다. 서울은 1960년대 후반 도쿄 고가를 모델로 공사를 시작해 1976년 청계고가도를 완공했다. 도쿄보다 훨씬 단순한 도로였지만 공사 10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도쿄와 서울의 도심 고가도로 운명은 엇갈렸다. 도쿄 고가도로는 계속 같은 존재로 곧 60년을 맞이하지만, 청계고가는 30년도 채우지 못한 채 2003년 철거됐다. 전환점은 청계천 복원이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청계천을 복원하자, 도쿄, 홍물 된 도심 고가로 골치 청계천 복원한 서울에 감탄 그사이 도쿄 천지개벽 서울 퇴보 운명 가른 리더십과 마스터플랜

심 고가도로와 니혼바시로 고민하던 도쿄는 충격에 휩싸였다. 2005년 와세다대 교수가 대표를 맡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모임’은 대표적 ‘나쁜 경관’으로 니혼바시와 고가도로의 기괴한 공존을 선정했다. 2006년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에는 ‘니혼바시의 하늘을 되살리는 모임’이 만들어져 고가 철거와 지하화를 제안했고, 고이즈미 총리도 이를 지지했다. 이처럼 도쿄가 서울을 진심으로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다. 도쿄는 리더 한 명이 청계천 복원과 버스 중앙차선제·환승제로 서울

을 바꾸는 과정을 낫 놓고 지쳐보며 그를 도쿄로 초대했다.

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의 도쿄대 강연에선 청계천 예산이나 토목 기술이 아닌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청계천 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대로다. 생계가 걸린 상인들의 반발과 달리 시민 단체와 정치권의 반대 투쟁은 말 그대로 정치적 이유였다. 이 시장은 강연에서 “철저한 현장 조사, 치밀한 계획과 최신 기술, 무엇보다 원칙과 성의로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청중 500명은 서울의 리더십을 받아 적기 바빴다. 그런 때가 있었다.

청계천 이후 서울과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2년 도쿄 재개발의 기틀을 마련한 고이즈미 총리 같은 리더십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도쿄의 천지개벽은 매뉴얼의 힘이다. 한번 계획을 세우면 도쿄는 리더십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서울은 시민 단체 출신 서울시장의 10년 동안 심심해지고 후지고 남아졌다. 그는 보존과 재생이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니 건 외 보였다. 서울은 앞으로 몇 번 리더십 교체가 있을 것이고, 이상한 철학이 또 등장해 도시를 퇴보시킬 위험성이 크다. 정치에 흔들리지 않을 서울과 국가 부흥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데 정치는 오염수다. 양평이다, 안드로메다 같은 논쟁으로 날을 새우고 있다.

유광중의 차이나 別曲 [252]

망국의 위기 (亡國)



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이 구절을 공식 연설에서 사용해 화제다. 그는 분명히 중국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공산당이 망하고, 국가가 무너지는 망당망국(亡黨亡國)의 절박함을 입에 올렸다. 그런 위기의식이야 맞을 게 없다. 단지 위기를 자초한 공산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슬쩍 빠졌다는 점을 제외하고선 말이다. 그렇듯 중국은 위기 등을 미리 언급하는 데 능하다. “평안한 시절에도 위험을 생각하자”는 거안사위(居安思危) 식의 오래된 문화 심리다.

이욱의 우미인은 이렇게 맺는다. ‘내 슬픔이 얼마인 줄 아시는가? 마치 강을 가득 채운 범람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듯... (問君能有幾多愁?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날 풀려 크게 불어난 범람과도 같은 우환이 닥칠 것인가. 중국의 위기가 깊어지는 모양이다.

중공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 중로문화재단 대표

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이 구절을 공식 연설에서 사용해 화제다. 그는 분명히 중국의 위기감을 언급하며 공산당이 망하고, 국가가 무너지는 망당망국(亡黨亡國)의 절박함을 입에 올렸다. 그런 위기의식이야 맞을 게 없다. 단지 위기를 자초한 공산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슬쩍 빠졌다는 점을 제외하고선 말이다. 그렇듯 중국은 위기 등을 미리 언급하는 데 능하다. “평안한 시절에도 위험을 생각하자”는 거안사위(居安思危) 식의 오래된 문화 심리다.

이욱의 우미인은 이렇게 맺는다. ‘내 슬픔이 얼마인 줄 아시는가? 마치 강을 가득 채운 범람이 동쪽으로 흘러가는 듯... (問君能有幾多愁? 恰似一江春水向東流.)’ 날 풀려 크게 불어난 범람과도 같은 우환이 닥칠 것인가. 중국의 위기가 깊어지는 모양이다.

중공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習近平) 중로문화재단 대표

社 說

“중국 대체할 시장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 모두의 고민일 것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중 갈등에 긴 한국 기업의 대응에 대해 “중국이란 큰 시장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회복력이 없다”고 했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이를 대체할 시장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인들도 모두 하고 싶은 얘기일 것이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앓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투자한 공장이 불모로 잡히고, 거대 소비 시장이 닫힌다면 손에 보는 것은 기업이다.

미·중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는 특히 살얼음판을 걷는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반도체법은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1년간 이 조치를 일부 유예했다. 오는 10월이 시한인데, 이 조치가 추가로 얼마나 유예되는지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 SK하이닉스는 D램 40%와 낸드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투자한 금액만 각각 33조원, 35조원에 이른다. SK하이닉스가 인텔에 70억달러를 주고 인수한 다렌 낸드플래시 공장은 업그레이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기업들도 아우성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론 제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자, 마이크로론은 오히려 추가 중국 투자를 발표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도 최종적으로 중국에서 조립되고 테스트되는 게 현실이다. 반도체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갈라설 수 없다는 미국 언론 보도까지 나온다. 미국이 중국을 적대하면서도 열린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바탕엔 이런 경제적 이해가 깔려있다.

미국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동맹 관계를 해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기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할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이다. 중국의 GDP 규모는 G7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국을 다 합친 것보다 크다.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종종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국 시장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원칙을 지키되 신중하고 유연해야 한다. 그런 지혜를 찾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

현대차 노조가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파업을 벌였다. 생산라인을 4시간 동안 멈춰 20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 파업은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벌인 것이라고 한다. 공장 조합원 4만여 명을 가진 국내 최대 노조 임금이나 근로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 목적을 위해 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전국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춰 세웠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겠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 부진 속에서 수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장난처럼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일탈은 한국이 파업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하면 사실상 그대로 파업이 된다. 그대도 노조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회사는 노조 눈치만 본다. 나라 산업의 중추와도 같은 거대 공장이 이렇게 쉽게 멈춰 선다.

쉬운 파업, 멋대로 하는 파업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노조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든든한 뒷배가 돼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날,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란

봉투법’ 추진을 공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더욱 넓혀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렵게 만든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

대기업 노조의 제 멋대로 파업을 막으려면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엄벌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나아가 불법 파업 시 단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대기업 노조는 이미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다. 민노총은 한미 동맹 해체, 한미 훈련 중단 등을 주장하며 정치 투쟁을 벌여 왔다. 북한은 노조가 말살되고 근로자가 노예가 된 곳인데 그 북한이 옳다고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한다. 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노조 활동을 하려면 한미와 남북 관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런 민노총을 개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근로자들 뿐이다.

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

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수술을 연기하거나 환자를 옮기는 등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파업에는 전국 20곳 정도의 삼급종합병원을 포함해 145개 의료기관, 4만여 명의 간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노조는 “인력 부족,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 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 등은 미리 13~14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 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외상선

터를 운영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은 119종합상황실 등에 ‘환자 이송 자제’를 요청했다. 웬만하면 119 환자도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에 몰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서울 도심 대로를 막은 채 파업 투쟁기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마비 상태였다. 폭우도 겹쳐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파업이 어떻게 국민 공감대를 얻을지.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노총 총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 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북주사파(좌파)와 그에 동조하는 분들만 꼭 봐야 할 광고입니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 대한민국과 북한의 신체·국력 비교 (2021년 기준)

구분	대한민국	북한
키 (성인평균)	173.5cm (남) 161.1cm (여)	165.6cm(남) 154.9cm(여)
기대 수명	80.9세(남) 86.8세(여)	67.0세(남) 73.8세(여)
국내총생산 (실질)	2071조원 (세계 10위)	35조원 ▶ 한국의 58분의 1
1인당 국민소득 (GDP)	3만4940달러 (세계 29위)	654달러 ▶ 한국의 53분의 1
무역액 (수출입총액, 2022년)	1조4151억달러 (세계 6위)	7억달러 (2021년) ▶ 한국의 2천분의 1
인터넷 이용률	91.5% (가구접속률 99.9%)	0.08%
발전설비용량	5768억kwh	255억kwh ▶ 한국의 23분의 1

*출처: IMF, 산업부, 통계청.

중북주사파(좌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 북한 주민의 키가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10cm 가
까이나 줄었습니다. 수명은 14년이나 짧습니다.
우리 국민도 이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 북한은 '아사자'가 예년의 3배에 달하고 범죄·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죽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거 남한보다 키가 컸던 북한 주민들은 DNA가 바뀔 정도로 신체 왜소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2011년 강원도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21세 북한군 병사의 키는 154cm, 체중은 47kg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20대 남성 평균 신장은 174cm, 체중은 69kg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북한처럼 냉난방 전기 없이 여름 속에서 살아 보겠습니까. 마취제 안 쓰고 수술받아 보시겠습니까?

2. 여러분들이 중북활동을 하는 동안 북한은 세계 최
하위 빈국,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습
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만들고 싶습니까?

남북한 경제력과 국민소득이 비스뻛었던 1970년대 이래 여러분이 북한 정권 추종 활동 및 굴종을 본격 화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0위 최 상위권 국가로 부상했고, 북한은 한국의 58분의 1 수 준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DP)도 북한은 한국의 53분의 1 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념이 맞 다면 어떻게 이런 극도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나요?

3. 여러분들이 분열과 갈등을 선동하지 않았으면 우 리 국민소득은 4만~5만 달러로 더 높아졌을 겁니다. 지금의 3만 달러 수준을 북한처럼 만들고 싶습 니까?

여러분이 북한 정권 편에서 서서 한국 사회를 이념전 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지금 한국의 국민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것은 한국의 무

역역이 2021년 세계 6위라는 한반도 역사 이래 최고 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도 입증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피땀 흘려 성취하 는 동안 중북좌파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 적 갈등 비용을 초래해 함으로써 국민소득은 그 찬란 한 노력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북주사파 여러분,
이제 그만 애쓰시고
북한으로 가셔서
각자의 이념대로 살아 보시다!**

본 광고 내용은 뉴데일리를 애독하고
적극 후원하는 독자께서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NO. 4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